

#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의 제상\*

白南德\*\*

(e-mail : hiroshimapaek@hanmail.net)

## <목 차>

- |                           |                               |
|---------------------------|-------------------------------|
| 1. 서론                     | 4.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의 특징 |
| 2. 연구 자료 및 범위             | 5. 맺음말                        |
| 3.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 |                               |

키워드: 최남선(Choi, Nam-Seon), 일본한자어(Sino-Japanese compound words), 태극학보(Taegukhakbo), 대한유학생회학보(Daehanyuhaksaenghuihakbo)

## 1. 서론

### 1.1. 동기와 목적

19세기 이후 구라파의 아시아 대륙의 진출에 의해 한자문화권의 중국, 일본, 한국은 서구의 근대문명에 크게 동요하게 된다. 앞선 서구 문명을 받아내기 위해 각국의 언어는 그들 언어와의 접촉도 불가피하게 된다. 기존의 한자문화권에도 새로운 질서가 드리워진다. 서구의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언어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한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00년대에 들어서 중국과 한국인 유학생들은 근대화되어가는 일본의 모습과 세계정세를 본국에 전하고자 노력한다. 한국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996).

\*\* 한국마이스실용전문학교 시간강사, 일본어학

(1896)을 발행한 서재필, 한국개화운동의 선구자의 하나인 유길준, 최초의 근대적 잡지 『소년』을 발행한 최남선,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을 쓴 이광수 등은 모두 일본 유학생이었다. 이들은 유학 중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유학의 경험을 발판삼아 새로운 문명의 소개자로서 활약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유학의 선구적인 지식인으로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문학자 최남선이 남긴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일본한자어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 1.2. 선행연구

최남선은 한국의 근대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만큼 그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鄭淵吉(1983)에서는 육당 최남선이 일본유학시절 유학생들이 간행한 기관지에 기고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귀국 후에도 『소년』, 『청춘』 등을 통해 그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개관할 수 있었다

權正和(1990)는 한국의 지리학의 과거와 현대를 가교적인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남선의 지리 분야 저술을 검토하고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구지리학의 대체과정을 추적하였다. 최남선이 쓴 글을 통해 당시 그가 일본에 유학하면서 관심을 가졌거나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김육동(2009)은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과 『청춘』을 창간하고 그 잡지를 통해 서양 문학 작품을 집중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점을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 아울러, 최남선은 서구어 구사력이 부족한 탓에 주로 일본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중역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황미정(2012)은 최남선역과 그 저본인 일본어역의 한자번역어를 대상으로 한 중일 자료의 사용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최남선 역(訳)에 수용된 일본어역의 실태 및 최남선의 신조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고찰 대상이 일본어역의 한자번역어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최남선 역 전반에 걸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최남선역의 명치기 신어로 「개인, 국소, 노작, 모형, 특사, 문명, 야만, 자유, 주의, 화학, 공화정치, 민주정치」를 밝히고 있다.

이상, 최남선과 관련된 주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최남선은 근대문학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있지만, 최남선이 유학 때 남긴 저

작을 주제로 하여 일본한자어를 규명한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최남선이 유학시절 남긴 저술을 대상으로 개량적인 일본한자어의 출현과 그것들의 다양한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 자료 및 범위

본 연구의 자료와 조사범위는 최남선이 일본 체류 중에 저술한 것에 한정한다. 최남선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시기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유학생들이 간행하고 있던 잡지의 편집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일본에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며 유학생은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잡지 등의 언론출판을 통해 모국에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최남선이 일본에 체류하며 남긴 저술 『태극학보』(1906-1908), 『대한유학생회학보』(1907), 『대한학회월보』(1908)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을 간단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 2.1. 『태극학보』(1906-1908)

『태극학보』는 「태극학회」의 기관지로서 1906년 8월에서 1908년 12월까지 월간지로서 26차례 간행되었다.<sup>1)</sup> 최남선이 집필한 것을 조사한 결과 『태극학보』에는 3차례에 걸쳐 기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극학보』에 실려 있는 최남선의 저술

호	발행일자	필자	기사형태	기사제목	지면
1	1906.8.24	최남선	논설	獻身的精神(奇書)	16-19
2	1906.9.24	최남선	논설	獻身的精神(奇書)前続号	12-14
7	1907.3.13	최남선	잡지	北窓嚙語	43-46

1) 『태극학보』는 1895년 한국인유학생 최초의 공식적인 단체였던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에 의해 창간되었던 『친목회회보』에 이어 2번째가 된다. 아울러 당시 일본에는 다양한 많은 잡지가 간행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언론 출판물이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 2.2. 『대한유학생회학보』 (1907)

『대한유학생회학보』는 「대한유학생회」의 기관지로서 1907년 3월 동경에서 창간된 잡지이다. 『대한유학생회학보』는 전부 3호가 발행되었는데 최남선은 본지의 편집자를 역임하였다. 그가 집필한 것을 찾아본 결과, 『대한유학생회학보』에는 1,2,3호 전호에 걸쳐 8건의 기사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실려 있는 최남선의 저술<sup>2)</sup>

호	발행일자	필자	기사형태	기사제목	지면
1	1907.3.3	편집인	논설	現時代의要求하는人物	3-5
1	1907.3.3	편집인	학술	彗星說	39-46
1	1907.3.3	*学不厭生 訳	학술	地球之過去 及 未來	46-50
2	1907.4.7	편집인	논설	國家의主動力	4-7
2	1907.4.7	편집인	논설	熱心과誠意	7-8
2	1907.4.7	*崔生	학술	地理学雜記	45-51
2	1907.4.7	*学不厭生 訳	학술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64-70
3	1907.5.25	*NS生 訳	학술	人類의 起源 及 發達	66-75

## 2.3. 『대한학회월보』 (1908)

『대한학회월보』(1908)는 「대한학회」의 기관지이다. 『대한학회월보』는 1908년 2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전부 9호가 간행되었고 전체의 지면구성은 7개의 난 즉 소식·잡저·논설·학술·시·문예기타·기행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관지는 서양인의 전기 등 서양문물을 소개하는 문화 계몽지이며, 유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학술임을 명백히 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닌 민족지라고 할 수 있다. 최남선은 『대한학회월보』에 6편의 시를 남기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학회월보』에 실려 있는 최남선의 저술<sup>3)</sup>

호	발행일자	필자	기사형태	기사제목	지면
1	1908.2.25	大夢生	시	모르네 나는	53-55
2	1908.3.25	大夢生	시	막은물	56-57

2) \* 부분은 權正和 (1990) 「崔南善의 初期 著述에서 나타나는 地理的 關心:開化期 六堂의 文化運動과 明治地文學의 影響」 『応用地理』, 第13号, pp.10~11에 의하면 최남선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후일 한국에서 창간되는 『소년』에도 다시 출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1908.3.25	大夢生	시	생각한 대로	57-58
3	1908.4.25	大夢生	시	그의손	
3	1908.4.25	大夢生	시	백성의 소래	
3	1908.4.25	大夢生	시	나는 가오	40-41

이상, 최남선이 일본에 체류할 때 남긴 저술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의 작품에는 학술적인 글뿐만 아니라 시를 기고하는 등 문학적인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 소개한 작품 중 『대한학회월보』에 실려 있는 「시」를 제외한 『태극학보』,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실려 있는 저술 11건을 대상으로 하여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를 규명하고자 한다.

### 3.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

#### 3.1.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어

위에서 언급한 조사 자료와 범위에서 주로 2자한자어를 중심으로 한자어를 추출한다. 추출한 한자어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야후 재팬의 검색을 이용하여 한국어와 일본어 양쪽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양쪽에 함께 확인되는 것만이 조사대상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한자어를 추출함에 있어 고유명사, 한문에서 자주 등장하여 표현, 수량에 관한 단어 등은 조사대상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조사대상어가 확정되면 1차적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일본한자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 다음, 남은 조사대상어를 출전 및 용례 조사를 통하여 일본한자어의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상기의 수순에 의거하여 추출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한자어는 총 1,074어이다.

#### 3.2. 선행연구 지적의 일본한자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최남선의 일본유학 작품에 나타난 일본한자어의 규명이다. 그가 일본 유학중에 남긴 저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본한자어가 출현

3) 필자가 大夢生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남선의 필명이다. 이미 유학시절 다양한 작품 활동에 참여하면서 「学不厭生, 崔生, NS生, N.S.」의 필명을 남기고 있다.

하고 있는지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일본에서 남긴 저술을 대상으로 일본한자어의 규명을 위해 선정된 한자어는 총 1,074어이다.

본 연구에서 채용한 일본한자어의 선행연구는 필자의 선행연구(2005a, 2005b, 2007, 2013)와 이한섭(2014)이다<sup>4)</sup>. 최남선이 유학시절 남긴 저술에서 추출한 조사대상어 1,074어와 진술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361어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일본한자어로 추정되는데, 그것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한자어의 나열은 가나다순이다.)

架空	価値	簡單	概算	概要	開張	開進	開化	距離	挙示
巨艦	建設	健実	健全	建築	掲載	牽引	結果	決心	結集
脛骨	経路	鏡面	境遇	階級	繼續	繼承	系統	計劃	古代
考案	高熱	固体	曲線	困難	空間	空氣	公転	恐怖	共和
共和国	科学	關係	觀念	管理	觀察	觀測	鉦物	光線	光熱
広義	広闊	攪乱	教育	交通	構造	国家	国利	国民	国民性
国運	軍事	歸納	龜裂	僅少	根絶	近着	金石	金星	金属
基因	汽車	気体	基礎	内部	冷却	論理学	論述	断案	断言
断定	大氣	突起	動力	動物	等級	望遠鏡	明知	明確	母体
目的	文明	問題	文学	文学家	物理	物理学	物質	物体	未来

(100어)

微少	迷信	民權	民福	民族	民主	博士	反对	半島	反撥
反射	発見	発光	発掘	発達	発表	白金	法則	変状	変換
補充	普通	普遍	複雑	本能	附記	腐敗	分量	噴火	比較
卑屈	沸騰	憑信	氷原	事態	事項	社会	社会学	三角柱	想像
詳細	商業	省略	生理学	西曆	先決	選択	説明	摂氏	星霧
成分	成因	世紀	細分	消去	速度	速力	水素	需要	純文学
時期	時代	視線	是認	施行	新教	伸長	新陳代謝	实例	実地

4) 필자는 한국개화기라는 시점에 착안하여 일본한자어의 초기 유입에 대하여 일본유학생들이 간행한 잡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친목회회보』(1896-1898), 『태극학보』(1906-1908), 『대한유학생회학보』(1907)등의 연구에서 일본한자어로 인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결과를 이번 조사에서 활용하기로 하였다.

実質 失敗 心理学 双曲線 惡魔 案出 暗黒 压力 液体 惹起  
 野蛮 野蛮人 略述 魚族 言論 言明 言語学 歴史 研究 研修  
 演繹 熱帶 劣等 熱心 榮誉 當為 影響 予期 汚点 温度  
 (100어)

瓦斯 王冠 外界 外觀 慾望 偶然 宇宙 運動 運命 隕鉄  
 原動力 元素 遠心力 原因 原子量 危惧 偉大 衛星 遊星 流星  
 流传 音響 凝固 応当 凝集 依拠 意思 意志 以上 理想  
 理由 理学 人格 人骨 人口 引導 引力 人種 認知 日数  
 自然 自營 自由 自轉 作用 雜婚 抵抗 適應 戰乱 専門家  
 專屬 專修 專業 前提 接近 精神 定義 定着 政治 政治家  
 正確 提示 調査 組織 存続 存在 宗教 種族 住民 住所  
 主義 注意 重大 重力 重責 增加 地殼 地球 地理学 持續  
 智識 地熱 地震 地質学 地層 地下水 直徑 直線 直接 眞価  
 進歩 眞摯 進行 進化 集團 集積 集合 天文学 天王星 鐵道  
 (100어)

哲学 哲学者 青年 体質 總計 最强 最長 最後 測定 侵蝕  
 沈殿 他愛 橢円形 太陽系 土砂 通過 通常 通則 特殊 特質  
 膨張 拋物線 爆発 表面 表示 必要 学科 學問 學說 學術  
 学者 恒星 航海術 解釋 海王星 幸福 献身 現今 現象 現狀  
 現勢 現出 血盟 形成 形式 彗星 化石 火成岩 化学 化合物  
 確實 確信 確定 確知 換言 回遊 後天性 胸算 痕跡 吸引  
 稀薄 (61어)

이들 일본한자어에는 다양한 조사방법과 일본한자어 인정의 차이에 따라 빠  
 지거나 일본한자어가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만큼 한자문화권의 어휘교류를 생각하면 일본한자어 추출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선행연구조사에서는 361어의 일본한자어를 확  
 인할 수 있었는데, 동시에 일본한자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한자어 620어도  
 확인할 수 있었다<sup>5)</sup>.

5) 필자는 『친목회회보』(2005a) 2,422어, 『태극학보』(2007) 6,156어, 『대한유학생회학

### 3.3. 출전 용례조사의 일본한자어

앞의 선행연구 조사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한자어 93어를 대상으로 일본한자어일 가능성이 높은 어를 규명한다. 여기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표적인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일본국어대사전』, 『한어대사전』을 통해 출전 용례조사를 살펴보았다<sup>6)</sup>. 우선 각국의 대표적인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는지의 여부, 실려 있다면 그 한자어의 출전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 다음 출전이 있으면 상호의 교류관계를 고려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한자어가 일본한자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說示 填補 填充 總說 顯出

이들 일본한자어는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국어대사전인 『일본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의 출전을 일본 명치기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명치시대를 전후로 하여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로 신생한자어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결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의 명치기의 신생한자어는 주로 유럽 문명의 이식과정을 통해 새로이 창출되는데, 그 중에는 기존의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재탄생되는 것들도 포함된다.

## 4.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의 특징

### 4.1. 전문용어의 분야별 분류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한자어로 추정되는 단어를 한국의

보』(2013) 2,758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본한자어를 규명한 적이 있는데,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한자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중국한자어, 한국한자어를 이번 조사대상어와 비교분석한 결과 620어가 중복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한자어 361어와 일본한자어가 아닌 한자어 620어(艱難, 苦惱, 當場, 大綱, 因果等)를 뺀 나머지 93어를 대상으로 출전 용례조사를 했다.

- 6) 이들 한중일의 대표적인 사전은 각국의 권위 있는 최대 국어사전으로 가장 많은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국어대사전』, 『한어대사전』에는 표제어의 문헌상의 첫 출전 용례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의 사전을 검색하여 전문용어를 찾아 확인하였고, 그 중 전문용어에는 어떤 분야에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서 도출된 일본한자어 366어를 네이버 사전을 통해 검색한 결과 전문용어는 121어로 확인되었다<sup>7)</sup>. 전문용어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물리, 천문, 지리, 수학, 철학, 화학, 생물, 논리, 법률, 불교, 사회」 순으로 일본한자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색된 전문용어 121어를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sup>8)</sup>.

(1)물리에 관한 어 (25어)

固体 光線 気体 冷却 動力 望遠鏡 物理 物理学 物質 反射  
 變換 狀態 摂氏 速度 压力 液体 温度 原動力 遠心力 原子量  
 宇宙 引力 作用 週期 重力

(2)천문에 관한 어 (15어)

公轉 金星 尾星 星霧 衛星 遊星 流星 自轉 地球 天文学  
 天王星 太陽系 恒星 海王星 現出

(3)수학에 관한 어 (15어)

曲線 極寒 法則 三角柱 成分 消去 双曲線 容積 元素 直徑  
 直線 眞価 集合 楕円形 拋物線

(4)지리에 관한 어 (15어)

經緯線 大氣 半島 比較 氷原 熱帶 地殼 地熱 地理学 地震  
 地質学 地層 侵蝕 化石 火成岩

(5)철학에 관한 어 (9어)

7)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는 선행연구에 의해 지적된 일본한자어 361어와 필자의 출전 용례조사에 의해 새로이 밝혀진 일본한자어 5어로 함께 366어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일반 용어는 245어, 전문용어는 121어로 각각 67%,33%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전문용어의 분류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전을 이용한 결과로 분류방법 및 기준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다.  
 8) 전문 분야별로 많은 순으로 열거하였고, 한자어의 나열은 가나다순이다. 다만 복수의 의미를 지닌 전문용어는 첫 번째 의미의 분류에 따랐다.

價值 結果 偶然 理想 理由 存在 宗教学 現象 形式

(6) 화학에 관한 어 (8어)

白金 腐敗 沸騰 水素 沈殿 爆発 化学 化合物

(7) 생물에 관한 어 (8어)

動物 本能 生理学 選択 新陳代謝 流伝 適応 進化

(8) 논리에 관한 어 (7어)

歸納 論理学 断案 普遍 演繹 前提 定義

(9) 법률에 관한 어 (7어)

施行 人格 認知 自由 住民 住所 推定

(10) 불교에 관한 어 (7어)

結集 觀念 惡魔 外界 專修 智識 他愛

(11) 사회에 관한 어 (5어)

階級 社会 社会学 雜婚 種族

상기의 전문용어 내용을 들여 다 보면 과학(물리, 천문, 화학, 생물), 수학, 지리분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남선이 유학 당시 기고한 주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 남긴 저술은 앞에서 소개한대로 기사 형태는 「논설, 학술, 시, 잡거」이지만 그 중 특히 최남선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관심을 둔 분야는 「彗星說」, 「地球之過去 及 未來」, 「地理学雜記」 등 지금의 과학이나 지리학과 같은 학술분야이다. 이들 학술용어는 최남선이 귀국하여 창간했던 『소년』에 다시 저술되거나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학술용어는 반복적으로 소개되며 정착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 4.2. 일본한자어명사의 용법

최남선의 일본유학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한자어 366어에 대하여 실제 어법 속에 나타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일본한자어가

한국과 일본 양국어의 술어 기능과의 접속 여부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했다. 한일 양어에서 한자어명사에 연결되는 기능동사는 「하다」와 「する」이다.

먼저, 한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사전」에서 일본한자어와 접미사 「~하다」를 연결시켜 성립이 되는 지의 여부를 검색한 결과 164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한자어 366어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 「사전」에서 일본한자어와 접미사 「~する」를 연결시켜 성립이 되는 지의 여부를 검색한 결과 125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한자어 366어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한일 양어에서 한자어에 연결되는 기능동사 「하다」와 「する」의 접속 여부를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의 연결 수치가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은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를 위해 한국어에서 「하다」가 붙는 한자어가 일본어에서 「する」형태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일 것이다. 한국어 기능동사 「하다」와 연결되는 164한자어를 일본어 「する」로 연결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121어가 접속되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 기능동사 「하다」로 접속 가능한 것이 일본어에서는 74%가 「する」에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어에서 기능동사 「하다」와 연결되는 164한자어 가운데 일본어에서 「する」에 연결되지 않는 43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する」형태로 연결되지 않고 형용동사(な형용사)의 술어형태 「だ」로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だ」로 연결되는 23개의 한자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架空	簡單	健実	健全	困難	僅少	明確	複雜	卑屈	詳細
暗黒	劣等	偶然	偉大	自然	正確	重大	真摯	特殊	必要
幸福	確實	稀薄							

이처럼 양국어의 기능동사 「하다」와 「する」의 사용법의 차이를 일본한자어에 있어서도 확인 된 것처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에서 「する」형태로 접속하지만 한국어에서 「하다」와 접속하지 않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影響 分量 總說 胸算

### 4.3.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의 용례

여기에서는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역술(訳述) 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최남선의 저술 중에는 번역한 기사를 3차례 밝히고 있는데 기사제목은 「地球之過去 及 未來」,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人類의 起源 及 發達」이다.

연구 자료와 범위에서 소개했듯이 상기의 역술기사는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실린 기사로 회원들 뿐 아니라 모국에 새로운 문명과 지식을 전파하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기사의 내용에 나오는 일본한자어의 용례를 약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한자어는 「大氣, 冷却, 暗黑, 地球, 狀態, 引力, 流星, 遊星, 恆星, 熱帶, 斷言, 存在, 說明 原子量, 水素, 瓦斯, 種族, 新陳代謝, 理由」 19어이다<sup>9)</sup>.

(1)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其 直上에 浮遊하는 太陽의 大氣가 此로 因하여 얼마큼 冷却하여 其光을 失하게 되니 此即 暗黑하게 見하는

(2) 『대한유학생회학보』 1호 「地球之過去 及 未來」

居하는 此 地球가 其 始也엔 如何히 成立되고 成立當時에는 如何한 狀態로 在하였스며 또한 從茲以往은 如何히 變遷할는지

(3)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太陽은 地球보다 大함이 幾万倍인즉 其 引力도 隨大하고 引力이 大한즉 流星 隕星의 被引하는 數도

(4)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流星과 隕星이 太陽面上에 墮下하는 것이 即是라, 流星이런 것은 小天체가 非

9) 용례는 <http://db.history.go.kr/> 대한제국/한국근현대잡지자료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실려 있는 최남선이 번역한 기사 「地球之過去 及 未來」,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人類의 起源 及 發達」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아울러 이들 용례어는 전문용어로 본문내용에 다수 출현하는 것들로 엄선한 것이다.

常한 速力으로 我大氣中에 入하야 此와 磨擦하야 放光하느 者이오 此 隕星이  
런 것은 流星이 地上에

(5)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自此 吾人은 我遊星界에 下하야 光과 熱을 給与하느 中心體되느 太陽을 查察  
하리로다.

(6) 『대한유학생회학보』 1호 「地球之過去 及未來」

以上述來한 것과 如히 各恒星間에 距離는 非常히 遼遠하느

(7) 『대한유학생회학보』 3호 「人類의 起源 及 發達」

오죽 吾人이 原人의 生活狀態를 推度하야 人類의 初生地를 熱帶地方이라 함  
은 吾人이 可히 斷言하리니

(8) 『대한유학생회학보』 3호 「人類의 起源 及 發達」

原人의 發生期 人類는 何時頃으로 브터 存在하얏는지 此問題에 對하야는 精  
細히 說明키 難하느

(9)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 「地球之過去 及 未來(續)」

元素더로 存在하고 且元素中原子量의 極輕한 것스 水素瓦斯인則

(10) 『대한유학생회학보』 3호 「人類의 起源 及 發達」

其 分派만 現存하고 根本의 種族은 全히 絶種되느 事도 有하니 此는 所謂 種  
族의 新陳代謝니 其 理由는 自然淘汰에 因함이라 하리니

특히 「地球之過去 及 未來」는 저자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기사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sup>10)</sup>. 최남선은 일본에 있으면서 역자로서 자기의 관심과 계몽에 대한 인식을 번역을 통해 표출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은 귀국 후에 더욱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 재생산되는데, 최남선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일본한자어 역시 역술기사 속에 투영된 일본어의 재생산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술기

10) 참고로 「地球之過去及未來」의 원저자는 요코야마마타지로(横山又次郎)이며 동경대학 지질학과 출신으로 고생물학자이다.

사 속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 역시 최남선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자연스레 편입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개화기 일본유학의 선구적인 지식인으로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문학자 최남선을 다루어, 유학 중에 남긴 초기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를 규명해 보았다.

먼저, 그는 유학생들의 기관지인 잡지를 통해 저술을 남기고 있는데, 특히 역술기사에는 대량의 일본한자어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의 유학 저술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의 전문용어를 분석한 결과, 과학(물리, 천문, 화학, 생물), 수학, 지리분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남선의 일본 유학의 역술기사는 귀국하여 창간한 『소년』에 언급되거나 다시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남선은 일본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본국에서도 다양한 집필과 번역활동을 이어가는데 최남선의 동선을 토대로 살펴보는 일본한자어의 유입은 흥미로운 일이고, 최남선이 한국근대문학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그는 일본한자어를 한국어에 유입시킨 중요한 매개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權正和(1990) 「崔南善의 初期 著述에서 나타나는 地理的 關心」 『応用地理』 第 13号,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pp.10-11.
- 김옥동(2009) 「번역가로서의 최남선」 『외국문학연구』 제3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49-68.
- 백남덕(2005a) 「19세기 말 한국인유학생에 의한 일본한자어의 유입-『친목회회보』를 자료로 한 조사보고-」 『日本語文学』 第25輯, 韓国日本語学会, pp.51-69 .
- \_\_\_\_\_ (2005b) 「20世紀初頭における在日韓国人留學生の日本語の受容-文學者崔南善の場合」 - 広島大学大学院教育研究科紀要 第二部 (文化教育開発関連領域) 第54号, 広島大学大学院教育研究科, pp.221-230.

- \_\_\_\_\_ (2007) 「20世紀初め韓国人日本留學生の出版物に出現する日本漢字語-『太極學報を資料として』」 『日本語文学』第39輯, 日本語文学会, pp.51-69.
- \_\_\_\_\_ (2013) 「『大韓留學生會學報』に出現する日本漢字語の研究-明治新漢語を中心に-」 『日本語文学』第59輯, 韓国日本語文学会, pp.135-151.
- 鄭淵吉(1980) 「『青春』『學之光』其他 雜誌 詩壇考 -1906年~1918年 刊行誌를 中心으로-」 『漢城大學 論文集』 漢城大學, pp.263-342.
- 황미정(2012) 「1910년대 최남선의 번역물에 나타난 한자번역어에 관한 연구: 창출과 수용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第42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653-675.

### 【참고사이트 및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이한섭(2014) 『일본에서 온 우리말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 일본국어대사전2판 편찬위원회·소학관국어사전편찬부(2000-2002) 『일본국어대사전 제2판』 소학관
- 한어대사전편찬위원회(1990)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출판사
- <http://www.yahoo.co.jp/辞書>
- <http://dic.naver.com/사전>
- <http://db.history.go.kr/대한제국/한국근현대잡지자료>

논문 투고 일자 : 2016. 08.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

 <要旨>
 

---

## 崔南善の留学作品に出現する日本漢字語の諸相

白南徳

本研究は、韓国開化期に日本へ留学した先駆的な知識人として後代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文学者である崔南善を取り上げ、留学中に残した著作に出現する日本漢字語の諸相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次の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ず、崔南善は韓国人留学生の機関誌に著作を残しており、特に翻訳記事に大量の日本漢字語が反映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次に、彼の残した著作に出現している日本漢字語の専門用語を分析した結果、科学(物理、天文、化学、生物)、数学、地理分野に偏っ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最後に、崔南善が翻訳した記事は帰国後、彼が創刊した雑誌『少年』で言及されたり、再び掲載されたり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

このように、崔南善は日本での活動と経験を土台にし、帰国後も執筆活動を続けてゆく。崔南善の韓国への近代文学に及ぼした影響を考えると、彼は韓国語が日本語を受容する過程における重要な媒介者の位置にあるものと思われる。

 Various Aspects of the Sino-Japanese Compound Words Adopted by the  
writing of Choi Namseon in Japan

Paek, Nam-Deok

This study is a review of characteristics of the Sino-Japanese compound words in writing by Namseon Choi during his studies abroad in Japan wh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uture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Korean students in Japan as a pioneering intellectual.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Namseon Choi published his writing in the bulletin for international Korean students in Japan, and, most notably, he used the Sino-Japanese compound words in translation articles. Next, the analysis results of technical terms of Sino-Japanese compound words in his writing showed that the technical terms included mostly terms in the fields of science (physics, astronomy, chemistry, and biology), math and geography. Finally, it was shown that he referred to or published the articles he had translated in the journal named 'Boy'.

As shown above, he continued writing using his experience and literary activities in Japan after he had returned to Korea. Considering the influence on modern Korean literature he had, he is considered as having acted as a medium of introducing the Japanese to Korean.